드니 디드로의 생물학적 유물론*
- 혼종, 분자, 감성 개념에 주목하면서 -

장 세 룡

Ⅰ. 서 론
Ⅱ. 기형과 혼종: 자연적 존재의 평등
Ⅲ. 개체와 전체: 분자생물학적 물질론
Ⅳ. 연대의 조건: 보편적 감성의 물질론
Ⅴ. 결 론

Ⅰ. 서 론

드니 디드로(1713-1784)의 철학 저술은 앞서 발표한 견해를 회의주의자의 태도로 계속 재검토하며 이신론, 범신론, 무신론 그리고 유물론의 순서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결정적 명제를 천명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지극히 소설적이며 연극적인 대화체로 개방된 사고를 펼치는 디드로의 저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이론 체계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진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태도에 있다는 지적조차도 설득력을 가질 정도이다. 그럼에도 디드로의 철학에 가장 선명한 이론체계가 있다면, 기독교의 불관용과 광신, 무지와 미신을 비판하는 무신론자의 태도로 영혼을 포함한 자연세계의 물질적 통합성을 강조한 일원론적 유물론이라는 평가를 널리 받는다.

일반적으로 유물론은 물질을 자연의 유일한 본질로 규정하고, 그것의 역동적이고 활력적인 속성을 인식하는 성찰이다. 여기서 물질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잠재적 활력과 의욕(*nisus*)과 감성을 제공하고, 감성은 생명을, 생명은 다시 사고활동을 발생시키는 이행과정을 전개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정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L0001).

신성과 영혼의 불멸성을 가진 존재로 보거나 신의 의지와 연관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존재로 보는 기독교적 관점을 비판하도록 이끈다. 근대 유물론은 이미 17세기에, 고대의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로스 그리고 루크레티우스 등의 전통과 연관시켜 데카르트, 토마스 홉스, 스피노자, 피에르 가상디의 저술에서 '사변적' 형식으로 전개되었다.[1] 그러나 데카르트 특히 뉴턴의 자연철학이 물질과 운동을 사유하며 근대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신의 존재 문제와 결부시켜 성찰하였기에 유물론의 '과학적' 토대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8세기에 오면 많은 계몽사상가들이 신의 관념을 거부하고, 자연이야말로 인식의 토대나 준거라는 관념을 대립적으로 부각시키며 형이상학을 넘어 유물론에 주목하게 되었다.[2] 계몽주의 유물론자들은 성향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플라톤주의 관념론을 비판하는 라이프니츠를 중개자로 삼고, 물질이 사고를 수행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존 로크의 경험론적 가설을 변형시킨 콩디약과 볼테르의 감각론을 토대로 삼는 데서 공통적이다. 이들은 자연을 섬세하게 관찰하며 박물학·생리학·의학·화학 등의 분야로 탐색의 주제를 계속 넓혀 나갔다. 그 가운데서는 점차 라 메트리, 엘베시우스, 돌바크 등의 기계론과 모페르튀, 뷔퐁 등의 유기체론으로 분화되는 양상도 나타났다.[3]

디드로의 유물론 역시 물질이 모든 종극목적이나 초월적 지성과는 독립적으로 사물의 기원과 형성 및 보존을 계산하는 제1원리로서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면서 물리적 기계론 못지않게 생물학적 유기체론의 내용과 전망을 문학작품이나 철학저술에서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복잡한 논리에 기지와 재치가 넘치는 역설·반어·풍자·은유·비유로 미묘한 차이를 내포하는 담화와 진술로 가득찬 유물론 담론은 폭넓은 배경지식에

1) 유물론이란 말의 최초 대두에 관해서는 Olivier Bloch, *Le matérialisme*(PUF, 1985), pp. 3-31.
2) Jean Ehrard, *L'Idée de nature en France dans la première moitié du XVIII^e siècle*(1963)(Michel, 1994), p. 12; Bloch, *Matière à histoires*(J. Vrin, 1997), pp. 273-310; David Rosenthal (ed.),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Hackett Pub co., 2000), pp. 19-52.
3) 유물론이란 용어의 확산에 대해서는 Frank Salaün, *L'ordre des moeurs, essai sur la place du matérialisme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du XVIII^e siècle(1734-1784)* (Kimé, 1996); 유물론의 분화에 대해서는 Sophie Audidière et al., *Matérialistes français du XVIII^e siècle: La Mettrie, Helvétius, d'Holbach* (PUF, 2006).

www.kci.go.kr

신중한 텍스트 읽기를 요청한다.[4]

지성사에서 디드로는 19세기까지도 무신론적 유물론자이며 파렴치한 냉혈한이란 인신공격의 대상이었지만, 20세기 들어 특히 앙리 르페브르가 진화론적 유물론자로 긍정한 것이 재평가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5] 그러나 이에 맞서 『백과전서』의 "자유" 항목이나 『엘베시우스의 '인간론'에 대한 논박』(1773)에는 유물론 못지않게 보편도덕을 강조하는 형이상학적 관념론이 충만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6] 이것은 디드로가 자연철학에서는 유물론자이며 활력론자이지만, 문학에서는 정신주의자이며 전-낭만주의자라는 이중적 평가를 받는 현실과도 맞물린다.[7] 이 논문은 먼저 디드로의 유물론이 자연에서 분자운동이 가져온 화학-생물학적인 화려한 혼종의 양상에 특별히 주목했기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8] 그리

4) Carol Sherman, *Diderot and the Art of Dialogue*(Genève: Droz, 1976). 『백과전서』나 『두 인도의 역사』 처럼 저술자가 불확실한 공저, 혹은 돌바크의 『자연의 체계』(1770)처럼 은밀하게 기여한 저술도 있다. Alain Sandrier, *Le style philosophique du baron d'Holbach*(Honoré champion, 2004), pp. 477-535. 한편 엘베시우스의 『정신론』에 대한 두 개의 논박, 예카테리나 2세의 요구에 따른 두 개의 『관찰』 처럼 상황의 산물인 경우에는 전후 맥락을 고려한 더욱 신중한 글읽기가 필요하다.

5) A.-M. Chouillet (dir.), *Les ennemis de Diderot*(Klincksieck, 1993); Raymond Trousson, *Images de Diderot en France 1784-1913*(Honoré Champion, 1997); Jules Barbey d'Aureilly, *Contre Diderot*(Complexe, 1986); Elisabeth B. Potulicki, *La modernité de la pensée de Diderot dans les oeuvres philosophiques*(A.-G. Nizet, 1980); Henri Lefebvre, *Diderot ou les Affirmations fondamentales du matérialisme*(1949)(L'Arche, 1983), pp. 118-119.

6) Ulrich Winter, *Der materialismus bei Diderot*(Genève, 1972); G. Stenger, *Nature et liberté chez Diderot après L'Encyclopédie*(Universitas, 1994).

7) Paolo Quintili, *La pensée critique de Diderot: Matérialisme, science et poésie à l'âge de l'Encyclopédie 1742-1782*(Honoré Champion, 2001), pp. 27-37.

8) '화학적 유물론자' - Yvon Blaval, "Sur le matérialisme de Diderot"(1966), *Études sur Diderot*(PUF, 2003), pp. 353-367; '전투적 유물론자' - Josef Szigeti, *Diderot, une grande figure du matérialisme militant du XVIII^e siècle*(Budapest: Akademia Kaido, 1977); '매혹적 유물론' - Élisabeth de Fontenay, *Diderot ou le matérialisme enchanté*(Grasset et Pasquelle, 1981); '생물학적 유물론자' - Laurent Versini, "Introduction", in *Oeuvres*, t. I. *Philosophique*(Robert Laffont, 1994), p. 7; '추상적인 시적 유물론자' - Jean-Claude Bourdon, *Diderot, le matérialisme*(PUF, 1998), p. 55; '도덕적 유물론자' - Yves Bénot, "Y a-t-il une morale matérialiste?", Béatrice Fink et Gerhardt Stenger (dir.), *Être matérialste à l'âge des Lumières*: *Hommage offert à Roland Desné*(PUF, 1999), pp. 81-91; '방법론적 유물론자' - Colas Duflo, *Diderot philosophe*(Honoré Champion, 2003); Céline Spector, "Diderot: un matérialisme stratégique", *Critique*, no. 691(2004), pp. 1020-1032. 국내의 선구적 연구는 이정희, 「드니 디드로의 계몽사상 연구-그의 유물론을 중심으로」, 『서양사 연구』, 제3집 1호(1981), 69-109쪽; 김은숙, 디드로의 유물관과 우주의 역동 , 『불어불문학 연구』, 제28집 1호(1993), 43-61쪽; 정상현, 디드로의 철학여정과 회의주의」, 『불어불문학연구』, 제45집 1호(2001), 123-150쪽.

9) *Encyclopédie*, "Naturaliste", *Oeuvres*, t. I, *Philosophique*, pp. 480-481.

10) *Observations sur Hemsterhuis*, *Oeuvres*, t. I, *Philosophique*, p. 694.

하여 첫째, 디드로가 자연에서 기형과 혼종의 존재를 긍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면서 출발한다. 둘째, 유물론의 토대를 분자의 운동에 두는 바 초기 분자생물학이 제공하는 전망을 검토한다. 셋째, 물질의 본질을 하필이면 감성(sensibilité)이란 조건에서 끌어내는 이유와 그 목표를 확인한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는 디드로가 텍스트에서 유물론을 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하지만, 무엇보다 당대의 뷔퐁, 모페르튀, 라 메트리, 엘베시우스, 돌바크 등의 자연철학자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유지하면서 유물론을 성립시키는지 지성사적 맥락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II. 기형과 혼종: 자연적 존재의 평등

디드로 철학의 기본 전제는 기독교적 신의 존재에 근거한 도덕의 절대 기준을 부정하고 신앙의 다원성과 진리의 상대성을 인식의 기초로 삼으며,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기준을 자연의 '물질(matière)'과 인간의 '신체(corps)'에 두는 자연주의에서 출발한다. 『백과전서』의 "자연주의자" 항목에서, 디드로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적 실체만 믿는' 자연주의자는 무신론자와 스피노자주의자 그리고 유물론자와 동의어라고 규정하였다.[9] 그 자신이 무신론적 유물론자로 가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

> 유물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정의와 불의에 대한 관념들을 인간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에 바탕을 둔다.[10]

그러나 디드로는 당대의 유물론자들과 차별화된 관점을 표명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정(sentiment)'의 위치를 적극 긍정하는 것이다. 신의 존재를 논박하며 출발하여 차고 넘치는 기발한 사고와 발상을 전개한 『달랑베르의

www.kci.go.kr

꿈』(1769)에서 디드로는 '감정'을 '우리들의 진실한 감정'[11]이라고 부르며 '감정의 도덕' 개념까지 표명하였다. 쥘리 레스피나스 양, 달랑베르, 의사 보르되 사이에서 매우 수사적이고 다음성적인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저술에서 디드로는 생명의 출현, 두뇌의 판단이론, 자아의 출현을 다중심적 구성으로 전개하였다.[12] 그 가운데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기형(monstre)'과 '혼종(hybride)'에 관련된 현란한 대화에서 표현된다. 특히 샴쌍둥이 소녀, 폴립처럼 자기 분화하는 극미(animalcules)인간, 원뿔인간, 머리만 달린 인간, 자웅동체 인간, 외눈박이 동물 등으로 거침없는 상상력을 펼치더니, 파격적으로 '기형'을 자연의 실제 질서에서 보편적 현상으로 긍정한다.

환상에 가까운 대화에서 이들이 천명하는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현상에서 존재의 생존은 덧없이 순간적인 바, '기형'은 약간 더 지속적인 현상일 뿐이며, "모든 존재는 후속 질서와는 많건 적건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기형"[13]이란 사실이다. 그럼 세계는 전체적으로 기형적 존재의 집합일 뿐이란 말인가? 놀랍지만(!) 그렇다. 그 결과 디드로의 '시적 이성'은 보편적 기형론을 또 다른 정상성(normalité) 관념으로 진술하면서, 이것을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보편적 실체로 규정하여 남성의 생물학적 우월성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동원한다.

> 레스피나스: 아주 엉뚱한 생각이 든다. … 남자는 단지 여자의 기형일 뿐이라는 생각, 아니면 여자가 남자의 기형이라는 생각 말이다.[14]

남성은 여성의 '기형'이고 여성은 남성의 '기형'인 데서 인간은 해부학적 차이가 존재할 뿐이며 그 차이조차도 지극히 가변적이다. 다시 말하면 한

11) *Le rêve de d'Alembert*, *Oeuvres*, t. I, *Philosophique*, p. 622. 김재영 옮김, 『달랑베르의 꿈』(한길사, 2006).

12) 디드로의 후기 유물론에는 르 카뮈(Le Camus), 해부학자 폰 할러(von Haller), 보르되(Bordeu) 등 몽펠리에 학파의 의학, 루엘(Rouelle)의 화학, 트랑블리(A. Trembly)의 폴립(polype) 이론, 니덤(J. T. Needam)의 자연발생론 등이 영향을 끼쳤다. Eric-Emmanuel Schmit, *Diderot ou la philosophie de la séduction*(Albin Michel, 1997), pp. 229-247; Kurt Ballstadt, *Diderot: natural philosopher*(Voltaire Foundation, 2008).

13) *Le rêve de d'Alembert*, p. 645; *Élements de physiologie*, *Oeuvres*, t. I, *Philosophique*, p. 1279. *Observations sur Hemsterhuis*, p. 768.

14) *Le rêve de d'Alembert*, pp. 636, 645.

존재의 본질은 다른 존재 안에도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남성은 웬만큼 여성이고 모든 여성은 웬만큼 남성'이다. 디드로가 성의 이분법적 경계의 모호함을 드러내며 존재의 양상을 재편성하는 이런 진술로서 전통적인 남녀의 성적 정체성과 인간성 개념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생물학적 성적 평등을 인간 평등을 천명하는 토대로 삼으려는 목표에서 비롯한 것[15]이다. 그런 점에서 디드로의 유물론은 인간의 생물적 위계와 서열을 거부하고 사회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는 철학적 토대로 모색되었다고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드로의 진술은 '기형'을 인식론적으로 과대평가한 것 아닐까? 디드로도 이런 질문을 예상했던 것 같다. 『달랑베르의 꿈』 제3부에서 그는 레스피나스가 '자연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이는' 혼종의 양상에 우려 섞인 질문을 하도록 이끌었다. 이에 디드로의 대변자로 여겨지는 보르되는 지금까지의 진술에서 한 술 더 떠서 동물의 잡종교배가 가져올 결과에 기대어린 전망을 표명한다. 그리고 레스피나스의 우려와 달리, 광신과 편견, 자발적 절제와 금욕이야말로 자연을 거역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을 거역할 수 없고, 자연을 벗어날 수도 없는' '자연 그 자체'라는 자연주의를 다시금 표명했다.[16]

> 달랑베르: 인간은 하나의 평범한 보통의 결과물일 뿐이고 기형이란 하나의 희귀한 결과일 뿐이다. 인간이나 기형이나 둘 다 자연의 존재이고 필연적 존재이며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질서 안에 있다.[17]

이들의 대화에서 우리는 보르되=디드로가 당시에 첨예하게 진행되던 '기형'에 대한 논쟁은 물론이고, 동물의 잡종 교배 실험에 몰두하였던 자연철학자 존 니덤, 특히 뷔퐁과 모페르튀의 실험 결과를 예의 주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뷔퐁이 『박물지』(1749-1788; 전체 44권) 제3권에서 인류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기형'을 종(種)의 다양성으로 이해했다면, 모페르튀는 『물리적 비너스』에서 '기형'이 신의 정상 능력인지 아니면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지를 둘러싼 당대의 격렬한 논쟁에 개입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유전'이란 생물학적

15) 그러나 디드로는 여성을 합리적 존재라기보다는 도리어 신비한 묵시록적 존재로 이해했다. *Sur les femmes*, *Oeuvres*, t. I, *Philosophique*, p. 958.

16) *Le rêve de d'Alembert*, p. 673.

17) *Ibid.*, p. 636.

www.kci.go.kr

요소로 논박한 사실이 있다. 이들의 말을 순서대로 들어보자

> 우리는 인류에 기형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가능한 기형들을 세 종류로 줄여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정상적인 사실로 다루어야 한다.[18]
>
> 우리는 부모가 어린아이의 발생에 그들과 닮도록 기여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닮을 때 그들이 동등하게 어린아이의 형성에 참여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19]

그러나 디드로의 자연주의가 이들의 모든 과학적 탐색과 경험적 증거를 진리 탐구의 절대적 토대로 신뢰한 것은 아니다. 회의주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진실을 증명하는 자신의 이성과 감각의 정당한 사용을 믿는 철학'[20]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21] 질문을 거듭하며 정신 영역을 탐구하는(zététique) 회의주의는 독단적인 관념의 체계를 견제하고, 자연체계를 자유로운 '경험적 이성'으로 탐구하도록 이끄는 출발점이었다.

> 경험을 자유롭게 버려 두라. … 모순되는 측면을 은폐하는 것을 파악하라. … 경험을 시험할 때 관념을 가지거나 분별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결과 체계에 반대될 때, 검사에 엄격해야 한다. 언어에서 자연까지 현상의 표면은 변화한다.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관찰자는 관용된다. … '너의 직업은 자연에게 질문하는 것'이라는 최초의 말을 믿고, … 가치를 부여하라.[22]

청년시절의 저술 『철학적 단상』에서 디드로가 이신론에 끌린 것도 이 '경험적 이성' 개념이 작용했을 것이다. 자연은 신이 창조하고 주관하는 조화로 표상되는 영원한 질서요 경이로운 스펙터클이며 예술품, '나비의 한쪽 날개, 진드기의 눈 하나'[23]에도 전체 우주에서 신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18) Georges Louis Leclerc de Buffont, "Variétés dans l'espèce humaine"(1749), Robert Bernasconi (ed.), *Concept of Race in the Eighteenth Century*, Vol. II(Bristol: Thoemmes Press, 2001), p. 578.
19) Pierre Louis Moreau de Maupertuis, *Venus physique*(6ème éd. 1751), Bernasconi (ed.), *Concept of Race in the Eighteenth Century*, Vol. I, p. 126.
20) *Pensées philosophiques*, *Oeuvres*, t. I, *Philosophique*, pp. 28-29(단상 30, 33).
21) *Apologie de l'abbé Galliani*(1770), in *Oeuvres*, t. III, *Politique*(Robert Laffont, 1995), p. 151.
22) *Pensées philosophiques*, pp. 33-34(단상 47).
23) *Ibid.*, p. 23(단상 19, 20).

디드로가 이신론자로서 미세한 세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성찰한 것이, 장차 물리적 기계론보다는 무한한 시간 가운데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우연적인 조합 가능성과 유연한 수정 가능성을 추정하면서, 유기체론적 분자생물학으로 가는 길을 열었을 가능성을 긍정한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할 것은 디드로의 경험적 이성이 유기체론만 진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를 '바퀴, 밧줄, 도르레, 용수철, 저울추를 가진'[24] '기계'로 설정하는 기계론적 세계관도 선명하게 표명했기에 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라 메트리와 그에 못지않게 돌바크의 영향이 작용했다. 장-자크 루소가 돌바크의 살롱에 모여드는 디드로와 그림(Friedrich Melchoir Grimm)을 '돌바크 패거리'라고 불렀을 정도로 이들은 사상과 활동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했다.[25] 돌바크는 『자연의 체계』(1770)에서 물리적 세계든 정신적 세계든 막론하고 모든 것은 '그들의 고유한 본질을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된 가시적 또는 숨겨진 일련의 필연적 원인'[26]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자연의 필연적 불변성과 운동의 항구적 법칙성을 강조하는 자연주의적 결정론을 표명했다. 돌바크의 유물론은 세상의 온갖 사물 현상의 형성과 운동의 '상태 불변'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도 그 자체 안에 '폐쇄된 필연성'에 불과한 것이라는 필연적 원인을 강조하며 우연적인 원인과 효과를 무시했다.

>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전체 세계의 체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특수한 체계를 지배하는 운명에 종속 된다. … (자연 역시 불변의 필연적이고 항구적인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우연'이란 말은 의미가 공허하다. … 물리적 세계의 운동을 지배하는 필연성은 정신적 세계의 필연성도 역시 지배하는 결과 모든 것은 운명에 복종하는 것을 본다.[27]

그러나 디드로는 돌바크와 달리, 물질이 어떤 의미를 지닌 사물을 생산하려면 구체적 형식이 요청된다는 명제를 신중히 견제한다.[28] 도리어 세계는

24) *Ibid.*, pp. 22-23(단상 15, 18).
25) Pierre Naville, *D'Holbach et la philosophie scientifique au XVIII^e siècle*(1942)(Gallimard, 1967), pp. 256-262; Alan Charles Kors, *D'Holbach's Coterie: An Enlightenment in Paris*(Princeton U. P., 1976).
26) Paul-Henri Thiry D'Holbach, *Système de la nature ou Des loix du monde physique et du monde moral*(1781), t. I(Fayard, 1990), ch. xi, p. 246.
27) *Ibid.*, pp. 244-245.
28) *Pensées philosophiques*, p. 24(단상 21).

www.kci.go.kr

우연의 산물이고, 비록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원자가 무한히 결합하는 우발성이 작용하며 형성된다는 라이프니츠적 확률계산의 가설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최초생명체의 배아에 이미 자손이 형성되어 있다는 가톨릭-스콜라적인 섭리주의 전성설(préformationisme)을 거부하고, 근대의 뷔퐁과 존 니덤 및 모페르튀의 후성설(l'épigénèse) 즉 생명체를 비롯한 모든 자연형성 요소가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부패한다는 이론을 지지했다. 이것은 기독교의 생명관을 비판하고자 물질에는 끊임없는 운동만이 고유하고 본질적이라는 고대의 에피큐러스나 루크레티우스의 명제를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29]

디드로가 유물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맹인에 관한 서한』(1749)은 친숙한(!) '기형'인 맹인의 경험에서 인간이성이 도달 가능한 영역과 육체와 형이상학의 상대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한 저술로서 중요하다. 여기서 그는 25년 전 급속하게 맹인이 된 케임브리지 대학 기하학 및 물리광학 교수 손더슨(Saunderson)이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 '자연의 경이'를 강조하는 이신론자 홈즈(Holms)와 나눈 대화[30]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를 존 로크가 지식의 형성에서 시각과 인지의 상호 관계와 역할을 알고자, 선천적 맹인의 형이상학적 형상 관념과 자연지각력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 '몰리뇌(Molyneux)의 질문'과 연관시켰다.[31] 이 질문이 예민한 주제였던 이유는 맹인은 신이 부여한 자연의 경이로운 형상(pictura)을 볼 수 없고, 신체 접촉으로 획득한 심상(imago)만 가지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주요 쟁점은 맹인이 둥

29) *Principes philosophiques sur la matière et le mouvement*(1770), *Oeuvres*, t. I, *Philosophique*, pp. 681-686; Titus Lucrètius Carus, *De rerum natura*, tr. & intro. by M. F. Smith, *On the Nature of Things*(Hackett Pub. co., 2001). 디드로는 형상(figure)을 물질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중시했지만 루크레티우스와 달리 그것을 철학적 진실의 기초로까지 판단하지는 않았다. Natania Meeker, *Voluptuous Philosophy: Literary Materialism in the French Enlightenment*(Fordham U. P., 2006), pp. 156-160; P. Quintili, "La réception des matérialstes anciens chez Diderot", in M. Benitez-A. Makenna et al. (dir.), *Materia actuosa. Antiquité, âge classique, Lumières. mélanges en l'honneur d'Olivier Bloch*(Honoré Champion, 2000); Amor Cherni, *L'ordre et le devenir*(Droz, 2002), p. 302.

30) *Lettre sur les aveugles*, *Oeuvres*, t. I, *Philosophique*, p. 166.

31) John Locke,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New American Library, 1974), B. II, ch. ix § 8. Duflo, *Diderot, philosophe*, pp. 125-127; Bernard Baertschi, *Conscience et réalité: Études sur la philosophie française au XVIII^e siècle* (Genève: Droz, 2005), pp. 101-117.

근 원이나 네모 같은 기하학적 형상을 인식하는 방법의 문제였다. 대표적인 경험론자로 잘 알려진 조지 버클리 주교는 현상적인 관점에서, 맹인은 대상을 진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촉각과 시각의 '공통관념의 연합'이 표상을 규칙적으로 연속해서 작동시키는 데 유용한 습관을 제공할 뿐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디드로는 버클리의 경험론적 관념론을 적극 비판하고, '감각 경험의 연속이 관념'을 만든다는 콩디약의 감각론적 경험론을 수용하였다.[32]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관심을 집중한 사례가 있었다. 다름 아닌 타고난 맹인이었으나 1728년 수술로 시력을 되찾은 14세 소년 체셀덴(Cheselden)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 사례를 검토한 뷔퐁은, 버클리와 달리, 맹인의 심상은 공통의 감각중추(sensorium commune)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조직된 것이란 견해를 표명했고, 라 메트리 또한 눈은 활력을 가진 '기계'이며 맹인의 심상은 물질(두뇌)감각이 작업하여 조직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 두뇌가 감정의 원리를 실행하려면, 핵심적인 감각기관, 요컨대 감각중추로 충분하다. … 맹인들은 … 접촉을 통하여 형상이나 거리 등의 관념을 손쉽게 획득하게 될 것이다.[33]

디드로 역시 이런 관점에 동의하였다. 맹인이 '악덕과 덕성의 관념을 선험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버클리의 명제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도 여기 있다.[34] 디드로는 맹인이 자연현상의 물질을 지각하고 시각 세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경이로움'을 준거로 삼는 일반인과 달리, 이성적 '통찰'과 '범주화'로 대상의 형상과 본질을 포착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이 디드로가 버클리의 비물질론을 극복하는 것을 선결 과제로 삼고 논의를 집중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디드로가 유물론을 전개하려면 맹인

32) George Berkeley, *The Theory of Vision*(1709), A. C. Fraser (ed.), *The Works of George Berkeley* Vol. I(Thoemmes Press, 1994), § 136; Etienne-Bonnot de Condillac, *Essai sur l'origine des conaissances humaines*(1746)(Galilée, 1973), t. II, sec. II: "De la methode", ch. I § 7; *Traité des sensations, Traité des animaux* (1754)(Fayard, 1984); Diderot, *Lettre sur les aveugles,* p. 164.

33) Buffon, *Histoire naturelle de l'homme et des animaux*(1749)(Gallimard, 1984), p. 120; La Mettrie, *Le traité de l'âme*(1745), *Oeuvres philosophiques*(Fayard, 1987), ch. xv, histoire iii, p. 227; *L'Homme machine*, pp. 148, 209.

34) *Lettre sur les aveugles*, p. 147.

www.kci.go.kr

의 심상-상상을 여러 생리적 감각 질서의 산물인 소여의 종합으로 파악한 데카르트의 관점을 이론적으로 심화하는 동시에, 로크의 감각론 유산을 우회적으로 수용하는 이중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35] 덧붙여서 디드로가 로크-콩디약의 감각론적 경험론을 뷔퐁과 라 메트리의 기계론적 유물론 노선과 결합시켜 물질론적 합리주의로 급격하게 이행시키는 작업에서, 자연현상의 통합적 '일반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추정한다.

디드로가 '이성의 역설'을 요청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 세계는 신의 창조적 기원이 부과한 전체적 규칙성이나 정당성이 아니라, 오직 끊임없이 혼돈스런 다양한 가능성과 개연성을 동반한 물질 운동의 산물이다. 요컨대 끊임없는 생성변화가 '사물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조직하는 '순간적 질서'이다.[36] 세계는 영원한 현재일 뿐, 자연의 다양한 생명체는 창조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물질이 끊임없이 우연하고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생성된 결과의 산물이다. 신의 개입 없이 운동하는 '물질 전체의 영원히 변화'[37]하는 보편적 순환 바로 이것이 무신론적 유물론의 기본 전제이다.

III. 개체와 전체: 분자생물학적 물질론

디드로가 유물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장소는 『자연해석에 대한 단상』(1753-1754)이다. 그런데 그 출발점의 논리가 놀랍도록 전일적(holistic)이다. 경험물리학과 화학 및 생명과학을 결합한 다양한 추론들을 전개하더니 우주의 탄생과 진화, 구조와 기능을 연결하는 단일 법칙을 구성주의적 전체성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 개체의 절대적 독립성은 전체(le tout) 관념과 양립불가능하다. 전체의 개념

35) *Ibid.*, p. 149; Condillac, *Essai sur l'origine des connaissances humaines*, ch. VI, §14, p. 153; Marc Parmentier, "Le problème de Molyneux de Locke à Diderot", in *Recherches sur Diderot et l'Encyclopédie*, no. 28(Klincksieck, 2000), p. 21; Duflo, *Diderot, philosophe,* p. 182.

36) *Lettre sur les aveugles*, p. 167; Lucretius, *On the Nature of Things* 828-831, p. 159. "세계의 본성은 시간과 더불어 수정된다. 필연적 질서를 따라서 새로운 상태가 더 낡은 상태를 부단히 계승한다. 어떤 사물도 그 자체로 머물지 않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변환한다."

37) *Pensées philosophiques*, p. 25(단상 21).

> 없이는 철학도 없다. … 자연은 결코 하나의 행동만 산출하지 않는다. …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대연쇄는 만일 제현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철학도 없다.[38]

이 문장을 읽으면 디드로는 영락없이 일원론적 전체주의이다. 그러나 디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페르튀의 필명 보만(Baumann) 박사와 뷔퐁을 인용하며 자연 현상의 보편적 생산은 서로 다른 이종적 물질 요소들의 결합이거나 혹은 다수의 연속된 결합들의 연관·변이·통합의 산물이라고 경험물리학의 진보에 핵심적인 명제를 표명했다. 데카르트적인 신의 존재 요청에 맞서 물질의 독립성과 자연의 자기충족성을 과감하게 선포한 것도 그 작업의 일환이다. "더 이상 신은 요청되지 않는다. 자연은 물질이 신 없이 만든 것이다." 물질은 어떻게 자연을 창조하는가? 자연의 체계는 하나의 '탄성체(le corps élastique)'이다. "행성의 체계는, 모든 물체가 탄력을 가지므로, 탄성체다."[39] '탄성체' 곧 자연의 체계에서 자연은 물질로, 그 물질은 최소의 구성단위 원자인 분자(molécule)로 구성된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분자생물학적 발상을 목격한다. 물론 디드로의 분자생물학은, 단백질과 효소의 생합성을 지배하는 DNA 구조와 전성된(préformé) 유전자 기능을 다루는 현대의 분자생물학과는 달리 후성설(l'épigénèse)을 정당화하지만, 분자적 개체에 주목하는 생물학으로 전환하며 유물론을 출현시키는 지점이다.

디드로가 물질에 부여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자 이하로 분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둘째 이질성(hétérogénéité)이 특징이다. 물질의 최소단위인 분자는 각자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이 거대한 물질의 대양에서 한 분자와 닮은 분자란 없고, 그 자신과 닮지 않은 분자도 없다."[40] 그러나 이 분자들은 개별적 고유성에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결합하고 해체되는 연쇄의 고리 안에서 순환한다. 디드로는 우주-자연은 다름 아닌 물질의 다양한 분자들, 혹은 이 개체적 분자들이 연속적으로 결합하는 '보편적 연쇄'의 결과, 텅 빈 곳이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기계'[41]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긴다. 먼저, 개체주의적 분자론에도 불구하고, 이 보편적

38) *Pensées sur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Oeuvres*, t. I, *Philosophique*, pp. 562, 564, 596.

39) *Ibid.*, p. 575(단상 36, 1).

40) *Le rêve de d'Alembert*, p. 631.

41) *Encyclopedie*, "Animal", *Oeuvres*, t. I. *Philosophique*, p. 250.

www.kci.go.kr

연쇄는 '기계' 개념을 요청하며 세계를 전일적 기계론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디드로가 생각하는 자연의 '구성적' 본질은 차이와 연대가 가져오는 진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허약한 원인들과 가장 가벼운 결과들의 (연대가 가져오는) 무한 진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42] 자연현상의 차이를 지적하되 차별은 거부하고 자연의 질적 다수성과 물질적 이질성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 내게는 자연의 모든 존재가 오직 하나의 그리고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완전히 동종 물질의 생성물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나는 자연 현상의 다양성은 어떤 이질성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한 눈에 간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43]

둘째, 디드로가 자연의 물질에서 분자 개체의 이질적 성격을 발견하는 것이 이들의 구성적 관계를 부정하지 않을까? 역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도리어 운동의 작동인을 발견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물질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서 밀고 당기는 인력으로 자율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운동은 더 이상 신을 요청하지 않고, 물질은 자기 힘으로 자연을 생성한다. 디드로가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 요소인 분자가 작용과 반작용하는 힘으로 '각자의 형태와 정지 상태에 가장 알맞은 위치를 찾아서 결합'하는 운동으로 하나의 체계를 만든다고 추정한 것은 놀랍다. 우주가 진공상태라고 믿은 뉴턴은 운동을 설명할 수 없었고, 결국 최초의 근원적 원인으로서 신의 존재를 궁색하게 요청했다. 반면에 디드로는 우주에서 물질의 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한에서, 분자들의 결합체계는 매순간마다 끊임없이 파괴와 새로운 결합을 반복하며 질서를 형성하고 반복하는 운동과정을 겪는다는 명제에 도달하였다. '자연에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는 분자는 그 자체가 동적인 힘'이다. 한 순간도 변하지 않는 분자란 없으므로, 휴식이란 자연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추상 개념이다.[44]

42) *Pensées sur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pp. 565, 593.
43) 사실 데카르트도 자연이 물질로 구성됨을 이미 지적했지만 물질의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디드로가 보기에 동질적 물질은 어떤 내적 긴장과 작용–반작용도 작용하지 않고 현실의 활동을 이해하게 만들지 못한다. 데카르트가 중력의 작용을 비롯한 물질의 운동 근본 원인이 되는 힘을 찾아 고투했지만 결국 전능한 신의 힘을 요청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Baertschi, *Conscience et réalité*, p. 197.
44) *Principes philosophiques sur la matière et le mouvement*, t. I, p. 682; D. Holbach, *Système de la nature*, t. I, ch. iv, p. 79.

그 결과 디드로는 이렇게 공표하기에 이른다. 자연의 창조란 다름 아닌 이 질적인 분자들이 끊임없는 작용과 반작용 운동으로 매순간 수많은 물질체계가 생성과 파괴를 거듭하는 과정이다. 고정된 생물종(species)과 생물계(règne)도 없다. 현상의 모든 개체는 혼종일 뿐이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일반적 이름뿐이다. 이제 우리는 유명론적으로 한없이 자유로운 개체적 존재의 생성변화를 목격한다. 사실 디드로가 여기서 그쳤다면 아마도 두말할 나위 없이 개체주의자라는 판정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말이 추가된다. 모든 사물 현상은 오로지 하나의 본체를 수정하거나 발전시킨 것, 역설적으로 '세계에는 하나의 본질만이 있을 뿐'이며 '하나의 거대한 개체, 바로 전체(le tout)만 있을 뿐'[45]이다. 이 말을 듣고 있노라면 디드로가 세계의 이질적 개체의 끝없는 다양성과 이들을 수렴한 전체적 통합성 사이에서 길을 잃고 늪에 빠졌거나 아니면 대책 없는 말놀음을 벌이는 것 같다. 심지어 계몽주의 유물론이 지향한 비준봉주의적 경계넘기와 혼종적 사유가 제공하는 자유를 환상에 불과한 형이상학적 전체주의 유물론으로 귀결시킬 위험까지 감지한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디드로가 이신론자의 '자연의 경이' 개념을 전복시키면서, 물질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과제를 개체와 전체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이중 진술로 표명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먼저, 생명이 불활성 상태인 물질의 산물이라면 물질의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디드로의 말을 따르면, 물질에 열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분자가 신경을 만들고, 그것의 신경다발이 각 기관을 발생시켜서 결국은 생명체 탄생에 이른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물질 분자의 결합이 육체적 생명을 생성했다면, 정신적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인가? 즉 형이상학과 도덕, 사고와 심리행위가 개인 각자 신체의 감각에서 근원할 뿐이라면, 사고하는 존재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디드로는 물질에서 사고의 능력을 추정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더 추상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물질은 그들이 사고한다고 믿는 것과 거리가 멀지 않다"[46] 존 로크가 신의 계시 없는 물질의 사고능력을 부인하고 볼테르는 신체와 사고를 분리시켰지만, 디드로는 '기형'의 존재인 맹인의 빈약한 감각을 예로 들며 물질에 사고능력을 부여할 계기를 만들고자 나섰다. 『백과전서』의 "동물" 및 "로크" 항목에서 디드로는 사고

45) *Le rêve de d'Alembert*, pp. 620, 637.
46) *Lettre sur les aveugles*, p. 148.

www.kci.go.kr

자체를 일련의 물질적 감성으로 간주하고, “감성이 사고의 제일 배아라면, 사고는 물질의 일반적 속성이 될 것”[47]이라는 입장을 전개한다. 그는 데카르트가 자연을 물질과 의식(영혼)이란 두 요소로 구분한 것과 달리, 토마스 홉스로부터 ‘나는 사고한다. 고로 물질은 사고 한다’는 명제를 끌어내고 물질에서 의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는 물질에 감각적 감성과 사고 그리고 지적 능력을 부여하며[48] 불활성 물질-감성-사고-지성을 명쾌하게 연결시키는 논리를 제시한다.

> 느끼는 것 그것은 사고하는 것이다. … 정신은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분자들이 결합하여 생명을 낳듯 그것이 영혼을 낳는다. 모든 자연 현상은 물질에서 기인한다.[49]

디드로가 물질의 속성인 감성이 수행하는 순환적 변환의 사례로 든 것이 있다. 바로 깨트려진 조각상의 부스러기가 ‘대리석에서 대지로, 대지에서 식물계, 식물계에서 동물계 그리고 살(肉)’로 이행하는 자연의 화학적 동화작용(assimilation)과 동물의 성장이 발생하는 과정이다. 그 결과 원소적 물질에서는 돌과 살이 다르지 않다는 구분불가능성과 연속성의 원리에 도달한다. 이것은 뷔퐁이 말한 도덕 및 물리적 영역에서 ‘진화’와 ‘순환’ 개념을 내포한다.[50] 그럼에도 이 설명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깨트려진 조각상의 대리석 부스러기들과 감각을 가진 존재들과의 접근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성이 사고로 이행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감각하는 존재가 또한 사고하는 존재인 것은 아니’[51]라는 달랑베르의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47) Locke,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B, IV, ch. III, § 6; Voltaire, “Sur M. Locke”, *Lettres philosophiques*(Garnier-Flammarion, 1967), p. 84; Diderot, *Encyclopédie*, “Animal”, *Oeuvres,* t. I. *Philosophique*, p. 256; “Locke”, *Oeuvres,* t. I. *Philosophique*, p. 474.

48) *Encyclopédie*, “Hobbisme”, *Oeuvres,* t. I. *Philosophique*, p. 444; *Réfutation suivie de l’ouvrage d’Helvétius intitulé L’Homme*, *Oeuvres,* t. I. *Philosophique*, p. 797; Bernard Baertschi, *Les rapports de l’âme et du corps: Descartes, Diderot et Maine de Biran*(J. Vrin, 1992), pp. 101-133.

49) *Réfutation suivie de l’ouvrage d’Helvétius...*, p. 797; *Le rêve de d’Alembert*, pp. 616, 620.

50) 광물이 풍화되어 분쇄되면 광물질을 함유한 대지를 이루어 식물의 자양분으로 변화하고, 식물은 초식동물의 먹이로 소화되며,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된다. 이 유기체는 사후에 부식되어 최초의 물질로 환원된다. *Ibid.*, p. 613; *Observations sur Hemsterhuis...*, p. 719; Buffon, *Histoire naturelle...*, p. 245.

이 문제는 특히 보편적 감성에 바탕을 둔 자아의식을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더욱 까다롭다. 먼저 감성이 보편적 존재라면 돌과 인간 사이에 비약과 이질적 차이가 없어야 한다. 생물의 감성에서 인간의 고유한 감성으로 통과하는 것도 그렇다. 그것은 이질적이지만 연결된 요소들 사이에 연속성을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두 관념의 비교 판단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엘베시우스는 『인간론』에서 물리적 감성만을 강조하고 연속성은 부정했다.

> 물리적 감성만이 우리 행동, 사고, 정념 그리고 우리 사회성의 유일한 원인이다. … 물리적 감성만이 인간의 유일한 원동력이다.[52]

디드로는 엘베시우스가 “오직 물질의 일반적 속성 혹은 조직의 결과인 물리적 감성의 현상에서 출발하여, … 모든 이해활동을 명료성으로 축소”[53]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우주에서 하나의 연속적 실체만 인정하는 디드로가 엘베시우스의 물리적 감성 일원론을 비판하는 것도 납득이 쉽지 않다. 파쇄된 조각상의 불활성 감성이 초식동물의 화학적 소화로 동적이게 되는 과정을 긍정한다 해도, 인간의 감성, 감각, 감정(sentiment) 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돌의 감정은, 식물과 동물 및 인간의 감정적 느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차이는 인간의 차이, 사고의 차이를 혼동시킨다.

문제가 복잡해진 발단은 자연 전체를 모든 존재와 사물을 연결하는 ‘대연쇄’로 규정하는 디드로의 우주 유기체론이 결코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달랑베르에게 던진 형이상학적 환상이라는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여지가 분명히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원리를 추구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필자는 이것이 디드로가 단일 체계의 구성을 거부하면서도, 존재의 온갖 다양성, 생존양식과 행동, 그들의 관계에서 나온 ‘모든 것(tout)’을 통일적 ‘전체(le tout)’로 이해하기를 지향한 데서 발생한 논리적 난관으로 판단한다.[54] 디드로가 유물론에 ‘예감, 영감, 주술, 기상천외

51) *Le rêve de d’Alembert*, p. 614.

52) Claude Adrien Helvétius, *De l’homme, de ses facultés intellectuels et de son éducation* I(1773)(Thoemmes Press, 1994), p. 102; cf. Jean-Louis Longué, *Le système d’Helvétius*(Honoré Champion, 2008).

53) *Réfutation suivie de l’ouvrage d’Helvétius intitulé L’Homme*, p. 797.

54) 세계의 다원성에 관한 선구적 논의는 Fontennelle, *Entretiens sur la pluralité des*

www.kci.go.kr

함' 등을 결합시켜 하나의 시학으로까지 고양시키려던 이유가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전체성은 디드로가 항상 놓치지 않고 확인하려던 원칙이지만, 그와 동시에 현상의 다양성, 현상을 구성하는 물질의 이질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의 자명한 현실이었다.

> 이질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서로 다른 무한한 방식이 있다. … 그런 구성요소들은 핵심적 차이를 가져야 한다. … 나는 자연 현상들의 일반적 생성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질적 물질들의 요소들이 필요하고, 자연은 이런 구성요소들의 실제의 일반적 결과 혹은 연속적 결합의 일반적 결과라고 이름붙일 것이다.[55]

디드로가 다양한 현상들의 필연적 관계와 변화 생성하는 요소를 '추정'하고, 물질의 가장 작은 요소로 상정한 분자를 통해서 우주 전체의 질서를 내다 본 능력은 놀랍다. 미시 심상의 관찰과 생물의 변형, 변성 및 변환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찬 디드로의 유물론은 가히 '초월적 생물학'[56]으로 불려도 좋을 정도다. 예컨대 '발효'는 '분자 내부의 동요'이며 부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현상이다.[57] 그 이유는 불활성이 활성이 되고 물질에 열・운동・영양과 같은 요소들이 자기조직하며 작용하고, 분자들이 결합・행동・반응의 법칙에 따라 상호 유사해지며 새로운 속성을 드러내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디드로는 메뉘레(Ménuret)와 푸케(Fouquet) 같은 몽펠리에 학파 의사들의 영향을 받고, 모페르튀 처럼 물질에 '욕망, 혐오, 기억, 지적능력' 등 생명체 고유의 감정과 기능을 부여하는 유기체적 활력론(vitalisme)을 수용하며[58] 보편적 감성의 유물론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무신론적 유기체 자연관은 또한 진화론적 세계관을 전망하도록 만들었다. 자연은 끊임없이 창조된다. 『자연의 해석에 관한 단상』에서 디드로가 세계와 생물종이 일시적 현상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생명존재의 무한한 생성변화를

mondes(1686), *Oeuvres complètes*, t. 2(1686-1688)(Fayard, 1990).

55) *Pensée sur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p. 596.

56) Quintili, *La pensée critique de Diderot*, p. 334.

57) *Le rêve de d'Alembert*, pp. 631-633.

58) *Pensée sur l'interpretation de la nature*, p. 565(단상 12), 588(단상 50); Giorgio Tonelli, *La pensée philosophique de Maupertuis: son milieu et ses sources* (Georg Olms Hildesheim, 1987), p. 48; Mary Terrall, *The Man who Flattened the Earth: Maupertuis and the Sciences of Enlightenment*(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p. 340-348.

추정한 것은『달랑베르의 꿈』에서도 이어진다. 필자가 생물학적 유물론의 기본 준거 가운데 핵심요소인 혼종을 발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현존하는 자연의 모든 생물종(species)의 질서는 과도기의 잠정적인 현상일 뿐이다. 생명은 영원하지만 종(種)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순간마다 끊임없는 시작과 끝이 동시에 공존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지나가고 오직 전체만이 남는다. 그 결과 디드로의 물질 이론은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의 결합 양식과 물질 상태의 활동 양식에 주목하기를 요청한다.

물질은 죽은(mort) 힘의 무생물과 산(vif) 힘을 가진 생물로 구분된다. 그런데 분자들이 결합한 물질에서 전체가 생물이나 무생물 한가지로만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물, 흙, 액체의 분자, 작은 곤충과 그들을 둘러싼 물질을 살펴볼 때 궁금한 점은, 왜?

> 죽은 물질은 항상 죽은 물질이고 살아 있는 물질은 항상 살아 있는 물질인가? 죽은 물질은 항상 실제로 죽었는가? 살아 있는 물질은 결코 죽지 않는가? 죽은 물질은 결코 살기를 시작할 수 없는가?[59]

놀랍게도 디드로는 불활성(inerte)의 삶과 활성(actif)의 삶 사이에서 감성적 장애물을 제거하면, 죽은 힘도 살아 있는 활성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뷔퐁이 살아 있는 물질과 죽은 물질 사이의 물리적 운동을 구분한 것[60]과 달리, 디드로의 이 명제는 분자로 구성된 물질의 조직과 운동의 자발성이 죽은 물질과 산 물질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도록 만든다. 요컨대 생물은 생명을 잃고 다시 얻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존재이다. "모든 행동과 반응은, 한 형식 안에서 파괴되고 다른 형식에서 재구성된다. 물질의 동종성과 양립불가능한 모든 생물종들과 현상의 승화, 분해, 결합이 그것이다."[61] 그렇다면 삶과 죽음의 구분은 잠정적 형식이나 상태에 불과하다는 말인가![62] 참으로 과학/철학적이고 심지어 불교의 윤회설을 상기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진술은 무엇을 목표로 삼는가? 아마도 세계의 통일적 본성과, 물질의 기계적

59) *Pensée sur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pp. 596-598.

60) *Encyclopedie*, "naître", *Oeuvres,* t. I. *Philosophique*, p. 480; Buffon, *Histoire naturelle...*, pp. 49-50; Roselyn Rey, *Naissance et développement du vitalisme en France de la deuxième moitié du XVIII^e siècle à la fin du premier empire*(Voltaire Foundation, 2000), p. 159.

61) *Principes philosophiques sur la matière et le mouvement*, p. 684.

62) *Pensée sur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pp. 598-599.

www.kci.go.kr

법칙과 물질 상태의 형식 변화에 따른 사물의 다양성을 설명하려는 의도의 표현일 것이다. 이것은 디드로가 특히 신체의 일반운동에 새로운 화학 법칙이 개입하는 원인을, 돌바크와 마찬가지로, 물질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각 분자의 본성[63]으로 설명하는 개념에 주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히 파괴불능이고 쉼 없이 국지적으로 운동하며 전체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수행하는 분자의 상호활동을 표상하는 힘, 다시 말하면 운동을 예비하는 죽은 힘이며 휴식하는 잠재적 활력 즉 '니수스(*nisus*)'이다.

IV. 연대의 조건: 보편적 감성의 물질론

디드로는 자연을 항구적인 내부 운동으로 개별 현상의 다양성과 독특한 성질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을 확정하려면 기계적이고 역동적인 물리학 개념을 수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실제의 자연에서 입증하여 확장시키는 과제, 곧 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론을 일정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디드로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의 기계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64] 생물학적 유기체론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 명제 역시 여전히 추정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이런 성향은 진실에 관한 매우 강한 개연성과 주관적 배치로 이끈다. 그 결과 사물의 본질은 물론 사물의 주요 성질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불가피했다. 디드로가 『달랑베르의 꿈』에서 '꿈꾸기'라는 독특한 형식을 끌어들인 것도 화학과 생리학을 비롯한 새로운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난관을 돌파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달랑베르의 꿈』 서두는 도덕의 절대기준으로서 신(神) 개념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출발한다. 이것은 '신', 곧 기독교의 신이 퇴위 당하던 한 시대를 잘 표상한다. 이제 무엇을 공동체의 개체와 전체의 관계를 판단하는 도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보편적 감성'은 퇴위된 신을 대체한 개념이었다고 판단된다. 감성은 운동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이며

63) *Principes philosophiques sur la matière et le mouvement*, p. 682. "자연에서 힘의 양은 항구적이지만 니수스의 총계와 변환의 총계는 가변한다. 니수스의 총계가 커지면 상호적으로 변환의 총계는 작아진다."

64) *Lettre sur les aveugles*, p. 168. '중요한 모순을 내포하지 않고, 그 자체 생존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메커니즘만을 남겨둘 뿐'이라는 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물질의 일반적 속성 혹은 생체조직의 결과'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순한 가정'으로서 부각된다. 심지어 '신'을 대신하여 생명 창조까지 수행하는 전방위 개념으로 제시된다. 디드로는 감성 개념을 이중적 조건으로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신' 개념을 '폐기한다면' 감성은 구체적인 '연장'을 가진 개별적이고 운동하는 속성을 가진 물질이다. 또한 감성은 변화하고 행동하며 작용하고 반응하는 존재로서 '불명료한 점도 발생시키지만' 고유하게 대화적이다. 끝으로 감성은 물질 안에 내재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편적 본질로서 존재한다.[65] 이제 감성은 라이프니츠가 말한 '감각을 가진 비물질적 모나드'에 근접한다.[66]

디드로는 감성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먼저 그것은 가상의 잠정적인 성격을 가진 부동의 상태로서 신체의 '잠재적인 죽은 힘(*nisus*)'과, 신체 상태의 이동이나 변화하는 운동인 '생존의 힘'이다. 이것은 또 다시 활성화된 운동과 잠재적 운동처럼, 특별히 동식물에서 작용하는 '활성 감성'과, 활성화된 감성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존재가 확인되는 '불활성 감성'으로 구분된다.[67] 독특하게도 디드로는 심지어 무기체인 돌(石)에서조차도 잠재하는 감성을 발견한다. 이 말은 온 자연에는 고통과 기쁨의 감성적 느낌이 편재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생명이란 무슨 신비로운 신성의 실현이 아니다. 불활성의 무기체가 다른 활성물질과 동화작용하면서 감성의 작용으로 활성화를 기다리는 감성에 불과하다. 이제 생명과 감성, 이 두 성질은 존재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적응하며 작동하는 능력이고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68]

이와 같은 '보편적 감성' 명제는 스피노자주의 범신론을 상기시키지만, 그보다도 더욱 급진화한 것이며, 여전히 이신론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모페르튀와 뷔퐁의 자연철학을 넘어선 것이다. 그 결과 디드로는 첫째, 생명이란 물질형태의 끊임없는 변형과정에서 출현한[69] 집합체라는 것, 둘째, 감성은 그것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며, 자연은 감성이라는 잠재된 생명을 항상 내포한다는 무신론적 유물론에 도달했다. 이제 기독교가 신-인간-동·식물 순서로 부여

65) *Le rêve de d'Alembert*, p. 619.

66) Claire Fauvergue, *Diderot, lecteur et interprète de Leibniz*(Honoré Champion, 2006), pp. 163-173.

67) *Le rêve de d'Alembert*, p. 612.

68) Angelica Goodden, *Diderot and the Body*(Legenda, 2001), pp. 58-61.

69) 돌바크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한다. *Systèm de la nature*, t. I, p. 135.

www.kci.go.kr

한 존재의 서열은 무너지고, 모든 생물은 상호 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 자연과 인간의 차이도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자연사적 상태의 차이와 실천의 기예(arts mécaniques) 또는 산업의 차이일 뿐이다.[70] 그러나 보편성이란 개념이 문명화된 인간이 동일화를 강요하며 일부의 다른 인간을 배제하는 데 사용한 개념이란 비판[71]을 염두에 두고 보면 어떻게 비추어질까? 디드로가 기형과 혼종은 물론 광물계까지 감성의 존재를 확장시키는 데서, 비록 그것이 '형식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존재의 배제되지 않는 평등을 지향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감성이야말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연대를 실현시키는 핵심고리이다. 그러나 디드로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은 아니다. 철학 및 기술적 언어가 세계의 현상들을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현상들의 집성들'[72]을 구성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 것을 보면 그렇다. 고도의 은유와 현란한 유비를 자주 사용한 이유도 여기 있을 것이다. 먼저 동물은 '우연성'과 '연속성'이란 조건에서 형성되었다. 인간 역시 우연히 '감각을 가진 여러 분자들의 연속적인 접합'[73]의 결과 생겨난 피조물일 뿐이다. 이것은 라 메트리가 인간 생존의 우연성을 강조한 것과 같다.

> 인간의 생존은 … 어떻게 무엇 때문에 출현했는지 모르면서 지상에 우연히 떨어진 것이며, 오직 살고 죽어야 하는 것이다.[74]

우연적 존재인 인간의 생존을 이해하는 데 화학과 생리학은 좋은 견본을 제공한다. 먼저, '동화작용'은 라 메트리가 이미 제시했던 개념으로서, 디드로에게는 '감각과 생명을 가진 분자에 기초'하여 먹거나 기계적 작동으로 낯선 신체를 동종의 신체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살아 있는 근육 섬유(fibre)도 모양은 수학적 선형이지만 근육 자체는 같은 종류의 살(肉)을 연속적으로 더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벌레이고 동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동물

70) Quintili, *La pensée critique de Diderot*, p. 300. 『백과 전서』가 다루는 문제가 이것인 셈이다.
71) Étienne Balibar, *La crainte des masses: Politique et philosophie avant et après Marx*(Galilée, 1997), 최원 · 서관모 옮김, 『대중들의 공포: 맑스 전과 후의 정치철학』(도서출판 b, 2007), p. 532.
72) *Pensée sur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p. 564.
73) *Le rêve de d'Alembert*, p. 634.
74) La Mettrie, *L'Homme-machine*, p. 183.

역시 감성과 연속성으로 동화작용하는 신경섬유망 생체조직로서 '한 체계, 한 통일체, 한 일반적 정체성에서 유지'[75]되는 연속성의 법칙—'공감, 통합성, 일반적 정체성'—을 통해서 재통합된 분자나 근육섬유의 통일체이다.[76]

그러나 생체조직의 연속성과 재통합을 이렇게나 강조하다 보면 생물의 양상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디드로가 당대의 조류를 좇아서 생물종과 생물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탐험하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혼종들의 가능한 양상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도 여기 있을 것이다.[77] 개별 사물들 사이의 이행과 전이가 가져오는 혼종에 대한 온갖 기발한 환상적 사색은 디드로 유물론의 비준봉주의적 개방성을 표상한다.

> 모든 존재들은 … 모든 종들 사이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 영원히 유동한다. … 모든 동물은 다소간 인간이며, 모든 광물은 다소간 식물이며, 모든 식물은 다소간 동물이다. 자연에서 명확한 것은 없다.[78]

디드로는 생물종과 생물계의 혼합을 보여주며, 개체의 확고한 본질과 칼폰 린네우스가 설정한 계통분류학[79]을 거부하고, 자연에 존재하는 종의 다양성과 풍부한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다. 한편 존재의 이행과 연쇄는 은밀한 복잡성이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므로, 식물에서 동물로,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통과하는 형식(forme)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디드로가 『생리학의 요소』에서, 자신이 아는 것은 '형식' 뿐이라고 강조한[80] 이유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 문제와 연관되리라고 추정한다.

75) *Le rêve de d'Alembert*, pp. 614, 627-628.
76) 모페르튀의 묘사를 차용한 분봉하는 벌떼(l'essaim d'abeilles) 심상은 개체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사례이다. 이것은 '동종의 분자들'이 유지하는 의식의 연속적인 통합적 구성을 설명하는 '벌송이(grappe d'abeilles)' 심상으로 전화한다. 개체의 결합체인 벌통은 '세계 또는 물질의 보편적 덩어리'이고, 벌의 운동이 가져오는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은 통일성을 지닌 다수성을 표상한다.
77) Mary Efrosini Gregory, *Diderot and the Metamorphosis of Species*(Routledge, 2007), pp. 119-145.
78) *Le rêve de d'Alembert*, pp. 636, 674 참조.
79) Karl von Linnaeus, *Philosophia Botanica*(1751), tr. Stephen Freer(Oxford U. P., 2003), "introduction".
80) *Élements de pysiologie*, p. 1317; Annie Ibrahim, "Le matérialisme de Diderot: forme et forces dans l'ordre des vivants", A. Ibrahim (dir.), *Diderot et la question de la forme*(PUF, 1999), pp. 87-103.

www.kci.go.kr

그런데 존재의 연쇄를 이렇게나 강조하면, 유(類)적 존재나 개별 존재의 감성적 '차이'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디드로의 유물론에 실제로는 기능적 이원론이 내재된 것을 끌어내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먼저 디드로는 '영혼(âme)'도 통합성을 가진 단위가 아닌 하나의 기능으로 이해하며, 두뇌에도 인식의 필수적 원천으로서 '영혼'의 자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감성이 두뇌와 횡격막이 작용하는 특정 기관에 물리적 규제와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개(犬)의 영혼은 코 끝에 자리 잡아서 항상 냄새를 맡고, 독수리의 영혼은 눈에 자리 잡고서 항상 응시한다.[81] 인간은 동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서, 정신과 신체의 통합체이다. 추정컨대 "동물은 하나의 전체이므로, 기억의 도움으로 정신과 자아 그리고 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마도 이 통합된 단위일 것"[82]이다.

이 말은 라 메트리가 '영혼은 관념 없는 헛된 용어'라고 단정했고, 뷔퐁이 두뇌를 생리적 신경 기관일 뿐이며, 인간이 유기적 분자의 연속적 변이의 순환과 운동을 겪으며 자연을 발견하고 변형시키게 되었다고 지적한 것[83]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 디드로의 유물론적 인류학 역시 이 점에 착안하였다. 인간은 기예(arts)를 주요한 기능적 도구로 삼아 고유한 본성을 개선하여 도덕적·물리적인 유적 완성과 지적 진보를 지향한다. 이러한 '기예'가 의존하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기억'이다. 디드로는 당대의 조류대로 '기억'을 지식과 진보의 토대로 상정하였다. 이 기억은 엘베시우스가 『인간론』에서 '감각의 기억'을 강조한 것과 달리, 돌바크가 강조한 '관념과 정신의 기억'에 가깝다. 진술을 순서대로 비교해보자.

> 이런 관찰은 내가 판단하게 만든다. 정확하게는 내가 받아들인 감각을 정확하게 알리게 만든다. … 기억은 받아들인 것을 그 자신이 수정하여 새롭게 만드는 내부기관의 능력이다.[84]

81) *Observations sur Hemsterhuis...*, p. 713; *Réfutation suivie de l'ouvrage d'Helvétius...*, pp. 814-815.
82) *Encyclopédie*, "âme", *Oeuvres*, t. I, *Philosophique*, p. 245; *Élements de physiologie*, p. 1307.
83) La Mettrie, *L'homme machine*, p. 131; Buffon, *Histoire naturelle de l'homme et des animaux*, p. 53.
84) Helvetius, *De l'homme...*, p. 91; *Réfutation suivie de l'ouvrage d'Helvétius...*, p. 795; D'Holbach, *Système de la nature*, t. I, p. 143.

디드로는 '기억'을 인간의 자아의식과 연관시킨다. 인간을 이루는 분자 역시 부단히 변화하고 인간은 시간 가운데서 변화를 의식한다. 그 결과 시간과 육체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식하는 '자아'는 남는다. 자아란 무엇인가? 존재의 의식은 하나의 역사로서 개인 자아의 존재의식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토대가 바로, 감각을 조직적으로 느끼며 살아 있는 존재에 고유한 연속성의 법칙을 표현하는 '기억'이다. 만일 기억이 없다면 존재는 오직 순간적 놀라움인 '인상들'과 연결될 뿐이다.[85] 디드로에게 기억이 소재하는 장소는 시력이 눈의 기능이듯, 신경 조직망에서 근원하는 특유의 감각 기능이 집결된 지점인 중추의 기능이다. 그럼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추가 신경조직을 통해서 감각을 전달받고 반응하여 '인상'들을 가지게 되면, 인상으로 전달된 감각들은 물질 조직인 두뇌에서 차례로 연결된다. 연결된 감각의 반응은 느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연결된다. 이것이 육체적 기관인 중추가 기능한 산물로서의 '기억'이다. 이 모든 연속적 느낌들의 기억이 인생과 자아의 역사를 만든다. '기억'이야말로 세계를 이해하는 제일 능력이고 이성적 활동의 토대이다.

> 이 기억이 없으면 인상을 받는 순간에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것이며, 그의 삶에 어떤 역사도 없을 것이고, 그의 삶은 연결할 수 없는 일련의 중단 없는 감각이 될 것이다. … 느끼며, 자신이 받은 인상을 연결해서 기억에 적합한 생체조직을 가진 한 존재가 이 연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사를 형성하고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는 단정하고, 결론짓고, 사고하게 된다. 상상, 유추 등 다양한 사고 능력도 신경조직에 달려 있다. … 모든 것을 감성, 기억 및 유기체의 운동으로 이끄는 것을 보라.[86]

그런데 사고활동이 감각의 느낌을 연결한 '기억'을 통해서 설명된다면, 정신에 적어도 두 사물의 동시 존재를 가정하는 '선택'과 '판단' 활동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디드로는 유물론자답게 선택의 문제에서 '의지'를 기계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자유의지'를 '괴물'로 규정한다.[87] 그리고 라 메트리를 따라서

85) *Éléments de physiologie*, p. 1290. 최근 역사학이 기억을 화두로 삼고 그 철학적 배경을 현대의 베르그송이나 프로이트에서 끌어내는 경우가 많지만, 계몽사상가들이 지식의 성립에서 기억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86) *Le rêve de d'Alembert*, pp. 616, 620, 665.
87) *Observations sur Hemsterhuis*, p. 767.

www.kci.go.kr

『달랑베르의 꿈』과 『생리학의 요소들』(1778-1781)에서 물질의 부분들 혹은 두뇌의 기능에서 '판단'의 범주를 검토하였다. 먼저 전제할 것은, '판단'은 하나의 사고활동이지 독자적 감성 영역은 아니므로 '사고하기'가 곧 '판단하기'는 아니란 사실이다. 그러나 디드로는 판단 문제에서 '정념'을 소홀히 취급하는 기계론적 설명은 거부한다. 인간은 판단과정에서 감정과 필요와 욕구의 작용과 영향이 불가피하고 사고활동은 복잡하여 '단순하고 수동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순수한 기계는 … 자유와 거리가 멀다'고 본 탓이다.[88]

디드로는 판단하는 두뇌를 현악기 하프시코드(clavecin)와 유비하였다. 두뇌 섬유를 떨리는 현으로 상정하고, 현의 울림과 소리는 우리의 관념에 상응시켜 유비적으로 설명한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이 퉁기는 '감성과 기억을 가진 악기'이다. 현의 떨림과 소리의 공명이 현을 퉁긴 뒤에도 오래 지속되듯, 우리의 감각/관념도 자극을 넘어서 한 관념이 다른 관념을 상기시키며 기억으로 오래 지속된다. 그것의 확산은 내부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다른 근접한 소리(관념)를 각성시켜 다시 확산(자극)시키며, 소리의 묶음 혹은 관념의 묶음으로 관념의 조화를 창조하며 이해와 판단을 제공한다. 이 유비는 대상을 제시하고 판단하는 두 개의 활동과 이와 연관된 신체와 사고라는 이원론을 가정한다. 그리고 감각 안에서 대상의 성질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관찰 비교하며 이해하고 판단할 가능성을 신뢰한다. 그 결과, 흔히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감각과 이성의 소유 차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방식으로는 불활성 물질에 열(熱)과 운동이란 자극을 배치하여, "감성, 생명, 기억, 의식, 정념과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89] 심지어 언어 발생의 기원도 그것이 고통·욕망·기아·즐거움과 같은 감각에서 출발하기에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인간 신체조직의 정념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물리적이다. 그러므로 '좋은 음악은 원시언어의 좋은 이웃'이다.[90]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디드로의 유물론은 모든 것을 화학 및 생리학의 과

88) *Élements de physiologie*, p. 1299. 디드로가 기계론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감성과 양립이 가능한 기계론적 이해의 장점은 보존해야 했다. 물질에 이질적 요소인 영혼, 정신적 요소의 개입을 제시하거나, 사고활동의 기능에 기계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89) *Observations sur Hemsterhuis*, pp. 616-618. 악기 유비는 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론』에서 먼저 나타났다. *L'Homme machine*, p. 165.

90) *Élements de physiologie*, p. 1301.

정을 통해서 설명하다가 결정적 설명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은유적이고 시적인 개념이나 심상으로 치환해 버리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과연 그런 개념이나 심상이 사물의 진정한 실체를 판단할 기준을 제공한다고 신뢰해도 좋을까? 디드로가 자신의 유물론에 내포된 한계를 몰랐을까?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 레스피나스: 아무 것도 없다. 나는 한 점으로 존재한다. 나는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을 거의 중단했다. 나는 나의 사고만 느낄 뿐. 더 이상 이 장소도, 운동도, 몸도, 거리도 공간도 내게는 없다. 나에게 우주는 소멸되었다, 나는 우주에서 아무 것도 아니게 되었다.[91]
>
> 불활성 부분들의 조직이나 배열이 모두 감성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물질의 일반적 감성은, 자신이 제거해야 할 난관들에서 자신의 힘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가정일 뿐이다. 훌륭한 철학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92]

앞의 인용은 디드로가 비판한 엘베시우스처럼 상상력을 고도로 확장하면서, 존재론과 인식론 없는 형이상학적 회의주의와 자기비판을 함축한다. 뒤의 인용은 『엘베시우스 '인간론'에 대한 논박』에서 따온 것인데, 물질의 보편적 감성이론이 토대가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다. 이제 와서 디드로가 유물론을 포기해 버린 것일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과학적 생산성을 가진 연구가설과 만족스런 지적 체계 사이에는 항상 간극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생리학 요강』에서 디드로는 자신이 비록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아니라 해도, '이상한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진리로 이끄는 자'이기를 자청하였다. 그리고는 감성이 모든 존재의 보편감각[93]이라고 여전히 변함없는 신뢰를 피력했다.

V. 결 론

디드로의 철학체계가 본질이니 물질이니 하는 추상적 용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은 인간 정신과 도덕의 실천원리를 모색하는 모럴리스트로서 인간과 자연을 새롭게 이해한 토대에서 새로운 사회체계 건설을 모색한 계몽의

91) *Le rêve de d'Alembert*, p. 648.

92) *Réfutation suivie de l'ouvrage d'Helvétius*, p. 798.

93) *Élements de physiologie*, p. 1267.

www.kci.go.kr

이념과 직결되어 있다. 계몽주의자 디드로의 지적 모험은 감각론에 근거한 물질·사고·정신·운동·공간과 지속성에 관한 철저한 회의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신론을 거쳐 무신론적 유물론의 전망을 획득하고, 마침내 현란한 기형과 혼종의 양상을 자연적 인간과 동등시하는 생물학적 유물론에 도달하였다. 생물학적 유물론은 분자적 요소라는 개체로 구성된 물질적 자연이 전체성에 근거한 다양한 힘의 역동적 통합성을 표현한다는 초기 분자생물학적 이해에 토대를 둔다. 그 결과 라 메트리, 돌바크 등의 기계론적 유물론과 친화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물학적 사물의 존재를 긍정하는 개방적 다원주의로 이끌었으므로, 기계론적 세계 이해가 강력한 규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디드로가 기계론적 유물론보다는 유기체론에 계속 관심을 기울인 배경에는, 자연의 경이를 강조하는 이신론적 사유의 경험과 함께, 고전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디드로는 세계를 오직 '물질'만을 실체로 삼아 이해할 뿐, 기독교적 창조나 초월의 원리는 물론이고 보편적 변환의 감각이나 질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신적 실체(hypostase) 자체를 부정한다. 디드로의 유물론 세계는 열려 있다. 세계는 끊임없이 시작과 끝이 공존하고 변화하고 이행할 뿐이므로, 인간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디드로가 물질의 운동과 변화 및 생성을 자극하는 핵심적 속성으로 꼽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 감성'이고, 감성의 유물론은 그 귀결이다. 디드로의 유물론에서 자연의 존재와 통합은 물질적으로 결정되지만, 그것은 이질적인 물질 요소(개체)로 구성되며 사물의 규칙적 형태를 생산하는 결합(전체)을 통하여 영원한 활력인 감성을 부여받는다. 디드로의 인간이해 체계는 모든 인간에게 감성의 도덕이 작용하는 것을 상정한다. 그 결과 개인에서 국가 영역까지 포괄하여 감성의 '보편도덕' 아래 '연대'의 원칙이 작동한다.

디드로의 유물론은 기독교 신앙과 전통 그리고 권위의 굴레에서 해방을 모색하며, 과학적 법칙에 입각하여 인간 정념을 변호하고 추상적인 체계를 거부하며 사실을 관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것은 이질적 문화와 종교를 폭넓게 조명하고 자신의 윤리적 도덕 명제들을 실현시키고자 채용한 방법론이었다. 그 결과 뛰어난 활동과 기억 및 사고와 같이 서로 다른 유기적이고 인지적인 기능을 산출하는 인간의 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동등성에서 출발하여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동등성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사회정치적 평등의 원리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함축했다.

그러나 디드로의 생물학적 유물론 체계가 일관성을 성취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동적이고 감각적이며 모순 없는 영원한 물질을 강조했지만, 후기에는 자신이 아는 것은 '형식'뿐임을 자인한 것을 보라. 필자는 디드로가 유물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독단을 견제하고 세계를 다양성으로 바라볼 필요를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디드로가 전망한 유물론적 보편도덕론이 계몽사상의 시대적 한계를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대 유럽의 독단적 도덕과는 거리가 있다. 진정한 도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구성원들에게 보편적 행복을 제공해야 한다는 디드로의 입장은 확고했고, 분자생물학에 근거한 보편감성의 유물론은 그 토대였다.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투고일자: 2010. 6. 30, 심사일자: 2010. 8. 3, 게재확정일자: 2010. 8.10〉

주제어 : 무신론(atheism), 기계적 유물론(mechanical materialism), 생물학적 유물론(biological materialism), 혼종(hybrid), 분자(molcular), 감성(sensibility)

www.kci.go.kr

〈Résumé〉

Le matérialisme biologique de Denis Diderot: une réflexion autour des concepts de l'hybride, du moléculaire et de la sensibilité

Se-Yong JANG

Sous les influences de La Mettrie, D'Holbach, Helvétius, d'Alembert et Buffon, Diderot qui est parti du scepticisme a affiné sa pensée en affirmant la sensibilité universelle de la matière. Il est arrivé enfin au matérialisme athétique. Son hypothèse conjecturale de la matérialité intégrale du réel joue un rôle serviteur comme méthode zététique. Celle-ci permet de comprendre la valeur du naturalisme éthique et politique de la nature et de l'homme. Diderot considère la "sensibilité universelle" de la matière comme élément essentiel qui suiscite le mouvement, l'activité et le devenir. Dans le matérialisme de la sensibilité du Diderot, la nature est composée d'éléments matériels hétérogènes et qualifiée pour avoir de la sensibilité constante bien qu'elle soit déterminée matérialement.

Le matérialisme de Diderot pourrait être considéré comme une 'pratique du désenchantement' qui se ferait l'avocat de la raison vécue de l'homme. Son matérialisme s'en sert comme une arme contre les dogmes théologiques et métaphysique (la création, l'ordre, la finalité, etc.) Il permet de recueillir et d'éclairer la culture et la religion hétérologiques. Il représente l'unité dynamique de la nature comme 'le tout' composé par la diversité des phénomènes dérivés de l'unité-totalité de la matière. Pourrions-nous dire que Diderot est moniste ou pluraliste? En général, on pense que le matérialisme est un système de régulation moniste des choses de la société et de la nature. En revanche, la vision de Diderot est pluraliste, ouverte par rapport à la compréhension du monde.

Le matérialisme biologique basé sur le mouvement des molécules conduit Diderot à poser les questions suivantes: 1) l'évolution de l'homme qui pourrait produire les actes éminents, la mémoire et la pensée avec la fonction organique et la reconnaissance composée des

'molécules' hétérologiques, 2) le fait que le sentiment est la condition nécessaire pour entendre et juger. Ainsi, la sensibilité a un rôle élémentaire et essentiel à connaître et constituer la nature et la société. La sensibilité immanente à la matière universelle s'établit comme une symphonie de la nature par règle et stimule le mouvement. Or la morale matérielle proposée par Diderot est loin de la morale absolue et dogmatique à cette époque en Europe. Selon Diderot, la sensibilité réalise la justice sociale et offre le solidarité à tous les membres de la société. Le matérialisme de la sensibilité générale serait ainsi une base de son principe de l'égalité socio-politique.

www.kci.go.kr

〈Summary〉

The Biological Materialism of Denis Diderot: Some reflections on the concepts of hybrid, molcular and sensibility

Se-Yong JANG

In the Enlightenment, many thinkers like La Mettrie, Helvétius, D'Holbach, G. L. Leclerc Buffon and Maupertuis were material/naturalists labeled as mechanical or biological. Diderot was also materialist affected from D'Holbach and La Mettrie etc. But his tendency was a kind of biological materialism based on the molecular biological understanding of nature and its dynamic unity.

I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Diderot started with naturalism, and also related it to skepticism. From this, Diderot reached atheistical materialism, and this functioned as key bases for his biological materialism. In this perspective, Diderot represented the dynamic unity-totality of nature composed by molculars as atoms. We may commonly think materialism is a monistic regulation on the things of nature and society, but Diderot's vision has leaded to the open-minded pluralism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world.

My purpose in this survey is to clarify the process of making materialism of Diderot and its common feature and difference. The materialism of Diderot was a theoretical and strategical instrument to achieve an ethical, moral supposition that realizes 1) to advocate human's passion, 2) to attempt liberation from traditional beliefs and shackles of authority, 3) to deny the abstract system for the observation of fact, 4) to illuminate heterological culture and religion, 5) and finally to achieve human equality in the abstract.

In his materialism, Diderot 1) focused on the evolution of man who can produce prominent acts, memory and thought with organic and cognitional function composed by 'molecule' implicit heterologically, 2) he elevated the sensibility as an essential element to understand and construct nature and society. The sensibility universally embedded in nature can be associated regularity, impulse, and eternal vitality with

whole things in the world. And this sensibility can also be operated on all human beings, society and state, so we can say there is neither good nor evil in the dogmatical dimension. There can only be the universal morality which can furnish solidarity of all components of community with happiness based on sensitive materialism and establish socio-political principles of the equality.

www.kci.go.kr